

## 이사종(李士宗)의 아내

외 한마님 전 소(疏) 상살이  
통곡 통곡하오며

외 한아바님 상사(喪事)는 무슨 말씀을 아뢰오리까. 춘추 높으시오나 평일에 기력 강건하옵시니 환후(患候)가 비록 침중(沈重)하옵시나 회춘(回春)하옵시기 바랬삽더니 천천만(千千萬) 몽매(夢寐)밖, 흉음(凶音)이 이를 줄 어찌 뜻하였아오리까. 줄지에 거창하옵신 일을 당하옵시니 영년 해로하옵신 정리 차마 측량치 못하옵나이다.

수의범백(壽衣凡百)은 상제(喪制) 관비(辨備)하을 줄 아오나 양례(襄禮)는 어느 때로 완정(完定) 택일(擇日)하압셨는지 의오 있아오니 즉시 나가서 뵈옵지 못하와 출가의인이라 하옵더라도 정례(情禮)와 인사(人事)가 아니온지라 통박통박(痛駮痛駮)하오이다.

촉처(觸處)에 유한지통(遺恨之痛)을 어찌 관억(寬抑)하오시랴 하정(下情)에 못내 일컷사오며 애훼망극(哀毀罔極)중 기후(氣候) 안녕부지(扶支)하오서 큰 병환이나 없으신가 일념(一念)이오며 내내 기력 천만 부지하압심 바라압나이다.

갑자 납월 초엿셋날 외손녀 살이

외 한마님 전 상살이

문

안 알외옵고 일기 고로옵지 못하온데 외 한마님께옵서 기체후 일행 만강 하옵신 문안 아옵지 못하와 주소(晝宵)로 복모(伏慕)부 리압지 못하와 하오며 망극하옵신 소기사(小暮祀) 격일(隔日)하셨 아오니 오죽 새로이 망극하옵실까 하정(下情)에 통박(痛駭)하옵나 이다. 초종(初終) 양례 때도 영연일곡(靈筵一哭)도 못 하옵고 망극 하오신 소기사에도 참사치 못하오니 죄악심중(罪惡深重)이로소이 다.

알외을 말씀 하감(下鑑)하옵심 첫사와 이만 알외오며 내내 기후 만안 하옵심 천만 바라옵나이다.

을축 납월 초이튿날 외손녀 살이

외 한마님 전 상살이

문

안 알외옵고 일기 부조(不調)하온데 기체후 일행 만안하옵신 문 안 아압고져 향념(向念) 간절하오이다.

상가(喪家) 세월(歲月)이 쉽사와 어언 대기사(大暮祀)가 격일하 션아오니 새로이 망극하옵심 어찌 관억(寬抑)하시는지 일컷사오며 듣자옵건데 한마님께옵서 여막(廬幕)에서 일보(一步) 출입 없으시 며 기년(暮年)을 거듭 하오셨단 말씀 그 정렬(貞烈) 정전(貞專)하 옴심 만고의 거울되오시며 정문(旌門)안에 우리러 뵈을 뿐이오이 다.

절부빙심(節婦氷心)이 애획하옵심 차마 망극하오나 기후 안녕 부지 하옵심 천만 천만 바라옵나이다.

병인 납월 초사흘날 외손녀 살이

외 한마님 전 상살이

문

안 알외옵고 복중 일기 고로압지 못하온데 외 한마님께옵서 기 체후 일행 강건하옵신 문안 아압고져 하나이다. 이곳 외손녀는

되시고 무탈하오며 존고(尊姑)께서 일시 관적으로 미령하셨아오나  
수이 쾌차하오시고 사랑(舍廊·남편)에서도 사진(仕進) 여일(如一)  
하오며 어린 것들도 충실하오니 하념(下念)마시옵소서.

일전 서 외조모(庶外祖母), 천만 뜻밖에 행차계시와 합내제절  
만안하옵심 아압고 하정에 경하 만만이로소이다. 서 외조모 전일  
과 달리 숙연하와,

「대방마님께서 무료해 하시니 지척에서 지성껏 되시고 싶은데  
이서방댁 의향은 어떠하시우.」

하옵기,

「그러하시우. 할미씨(서 조모를 칭함) 음성이 고우시고 할머니께  
서두 이제 안력이 전 같지 않으시니 좋아하시는 책두 읽어 드리  
구 가곡(歌曲) 시창(詩唱)두 들려드리시구려.」

하엿나이다.

한마님께오서 숙덕(淑德) 유여(裕餘)하오시며 관용하심이 바다  
와 같사와 소시부터 일절 투색(妬色)이 없으셨기, 서 외조모의 경  
모(敬慕)함이 지극하와 아름답더이다.

손녀 유시부터 한마님 지자(至慈) 입사옵기 천륜밖에 자별하와  
슬하에 유희하며 영석하옵던 정리 몸에 배어 문후(問候)한 이외에  
사연(詞緣)이 많기가 공경하는 도리에 가(可)치 아니하다 경계하  
던 어미(어머니)의 훈계 잊지 아니하오나 하정에 답답 곤욕지사  
(困辱之事) 허다하와 수다 무려하음을 무릅쓰고 감이 알외오니 여  
기오셔 노하지 마옵소서.

철심석장(鐵心石腸)이오 근엄방정(謹嚴方正)하온 아비(아버지)를  
반려(伴侶)하여 반백(半百)을 넘긴 어미는 모르웁니다.

달을 불러 노닐고 나비와 함께 꽃을 희롱한다는 풍류남아의 내  
자(內者)되어 사랑에서는 연일연락(連日宴樂)의 주육(酒肉)에 잠겼  
거늘 안에서는 반비(飯婢) 찬비(饌婢)를 면치 못하옵고 두견주  
(杜鵑酒) 대접하옵기 꽃을 즐길 겨를 없고 천렵(川獵) 차비 부산하  
면서 물소리 들어본 일 없아웁니다.

국화 피고 달 밝으면 사랑에서 들려오는 시창(詩唱)소리 청아하  
오나 주안(酒案) 뒷배 분주하여 귀 기우릴 여념 없고 동지남월

(冬至臘月) 엄한(嚴寒)에는 설견연(雪見宴)이 지락(至樂)이라 하오니 반빗간 어름마루를 떠날 수가 없나이다.

존구(尊舅) 이판대감(吏判大監) 자제로서 선전관(宣傳官)이면 불초(不肖)이운데 허명(虛名)이 높은 것은 면구(綿駒) 진청(秦靑)(中國古代의 名唱)을 넘어서는 명창이 연유라 하오니 사대부(士大夫)로서 어찌 부끄럽지 않으오리까.

두환(痘患)을 잘못 치루어 굵은 손티가 남은 면상은 괴위(魁偉) 하오며 육척장신이 장승 같사운데 춤을 추면 백학이 나는 듯 선인(仙人)이 노니는 듯하다 하오니 범상한 일이 아니오이다.

존구 생존해 계오실 때만도 풍류아라 하오나 효의(孝儀)가 특출 하와 삼가하였아오나 선고(先考) 만세 후로 방종이 심하운데 만득(晩得) 독신(獨身)이때 존고 자애(慈愛)하심이 권권(眷眷) 무궁하시와 잘못을 재통으로 실수를 재미로 보오시니 일점 자성(自省)이 없나이다. 풍골(風骨)이 괴위하오나 자상하오니 또한 범상한 일이 아니오며 연하와 장안 창기(娼妓)가 한가지로 따르오니 기골을 부지하는 것 역시 범상한 일이 아니오이다.

한마님 어미가 아오면 실색(失色)할 일만 알외웠나이다. 손녀인들 삼종지의(三從之義)의 막중함과 칠거지악(七去之惡)의 준엄하음을 어찌 모르오리까. 한마님께오서 권권애련하오시며 경계하오시던 효열정(孝烈貞)의 뜻도 은혜로 익혔나이다. 연이나 미련 용렬(庸劣)하온 소견이웁기 여름밤이 짧다하오나 공규(空闕)의 푸른 생초 모기장 속이 넓어 섭사웁니다. 월명추야(月明秋夜)가 길어 외롭사웁니다.

존고께서는,

「대장부가 처첩 거느리는 것은 차례이니라. 오죽하여 남아가 한 게집만 볼꼬.」

하오시나 몇 게집 보는 그 대장부 수발은 한가치 아니하오니 여공 재정(女巧才程)이 능치 못하오며 방적침선(紡績針線)도 그저그저 하온지라 흥두께에 삼팔입혀 어름같이 다듬기 힘에 겨웁사오며 하루 한결레는 떨어뜨리는 삼승보선 불 대기 늙지 않은 눈이 아물거리웁니다.

만고절부(萬古節婦) 한마님께 불의악처(不義惡妻)의 망언, 송구  
민망하오나 외롭고 서러운 심기 한마님께만 호소하옵는 대죄를  
용서하오시고 가련히 여기소서.

오늘밤도 사랑에서는 어느 장화(牆花)를 꺾고 있어온지 귀가치  
아니하옵고 존고께서는 사직골 작은 소고(小姑·시누이)댁에 행차  
하시어 준행남매만 어미와 집에 머물고 있어와 오래도록 지필  
을 대하고 있어옵니다. 곁에서 오묵이가 반은 즐며 보선 불을 대  
고 있어옵고 박은 적막 칠야이옵니다. 오묵이가 문득

「나리마님 보선은 참 야릇하게 떨어지지 오니까. 불보다 굵치  
가 더 많이 떨어져 와요」

하옵니다. 백학같이 선인같이 춤추는 그 모습이 안전에 떠오르매  
사람과 춤은 남이 보고 춤으로 하여 심히 떨어진 보선 굵치만 지  
어미가 다스리고 있나이다.

한마님 숙덕이 남 위에 솟으시와 단엄침중(端嚴沈重)하오시고  
유한정전(幽閑貞專)하오시와 회포를 가지시되 무심무려(無心無慮)  
하오셔 만사 효칙(效則)하오시고 또한 그리 훈계하오셨아온대 손  
녀 불칙경망하와 하교를 따르지 못하오며 오매 울울(鬱鬱)하오니  
불효막심이로소이다.

전세에 작죄(作罪)가 극심하여 여신(女身)으로 환생하옵고 다시  
함원(含怨) 불칙 망언으로 작죄를 거듭하오니 또 삼세(三世)의 집  
을 잃는 몸이 될까 두렵고 무섭사옵니다.

삼경이 지난 모양이옵니다. 한마님, 죄 많은 여인으로 지아비  
의 고임을 받지 못하되 그를 그리는 마음 또한 거짓이 없아오니  
스스로 망측 가련하오며 실덕무복(失德無福)의 탓인가 자괴(自愧)  
하나이다. 방중은 하되 행패하은 일은 없아온 즉 천성은 악인이  
아니오며 성품이 외양과 달리 자상하와 능소능 대한 처사로서 천  
추함원(千秋含怨)을 일촉(一觸)으로 무산케 하오니 역시 범상을 넘  
었나이다. 내외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속담이 허설이 아니옵기 부  
끄러이 사료하오며 다정(多情)이 병이로되 증심은 지닌 사람으로  
자애(子愛)도 남에 없나이다.

장황요설로 한마님 심회 어지러이 되시어 천만 천만 죄송하옵

나이다.

병인 유월 열하룻날 의손녀 살이

의 한마님 전 상살이

문

안 알외옵고 요사이

기체후 만안하옵신 문안 모르와 동동촉촉(洞洞燭燭)하은 복모(伏慕) 일시(一時)도 부리압지 못하와 하오며 생신에 못자와 지내 실듯 경하하오나 의오 잇아와 피시고 지내옵지 못하오니 하정(下情)의 지극 창모(悵慕)로소이다.

일전에는 천만 뜻밖에 하서 받자옵고 황공 감읍(感泣)하였나이다. 미거(未舉) 무려하은 사연, 격노하시지 아니하오시고 오히려 위로 격례하오시니 그 지자하오심 사모쳐 울었나이다.

한마님 아름다우신 필적 읽사오며 보답지 못하은 불효 측량할 길 없아옵고 가을 삼경 이 한시를 빈집에 홀로 잇아오니 정신이 아득하옵고 운무중(雲霧中)의 사람인가 하읍니다. 도무지 믿자옵지 못하와 차마 알외올 수 없아오나 가운데 쇠락하였아온지 이때 망량(魑魅魍魎)이 엿보는지 자리를 잡을 수 없아읍니다.

알외은대로 방중은 하되 사랑에서는 중심을 잃은 일은 없아읍니다. 천부(天賦) 미성(美聲)과 탁월기교로 천하명창의 이름을 얻 잡고 꽃속에 노닐었아오나 녀은 잃지 앓고 풍류남아로 자약(自若)하였아읍니다. 하온데 근자에 와서 요사한 계집에 빠져 심혼이 혼미하고 몸이 있되 녀이 없고 구름위에 뜬듯 살고 잇아오니 어이한 조화이온지 측량부지로소이다.

요물(妖物)인즉 세간에 흰자(喧藉)한 송도기녀(松都妓女)로 기명을 명월이라는 황진이(黃眞伊)온데 용색(容色)이 절묘하여 황홀 찬란하오며 백일이 빛을 잃는다 하읍니다. 사가(士家)의 서출(庶出)로 기적(妓籍)에 실을 몸은 아니로되 사연이 잇아와 화류향(花柳巷)에 노닐게 되었다 하온데 서시(四施) 귀비(貴妃)가 무색한 용태에 가무시재(歌舞詩才)가 또한 무류(無類)하와 천하 탕아(蕩兒)들이 그 일빈일소(一嘖一笑)에 간장을 녹인다 하읍니다. 치마 두른 여

신(女身)이오나 기상이 호호탕탕하여 기행(奇行)이 왕왕하오며 오기가 충천하여 박연폭포(朴淵瀑布), 서화담(徐花潭)과 더불어 송도삼절(松都三絶)의 하나로 일컫는다 하오니 그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탁월하와 작시(作詩)를 하오니 일세 문장이오며 요망한 것이 방자 방종하와 탁류(濁流)에 뛰어들어 오히려 희락하옵고 무릇 남아 또한 그 안에 끌어들여 낙으로 하온다 하옵니다. 일찌기 면벽(面壁) 수십년의 만석선사(晩釋禪師)를 유혹하와 파계케 하온 대죄를 저질렀아오며 수신 학덕이 당대 으뜸인 서화담선생은 끝내 굽히지 아니 하였다 하오나 요사스러운 요녀의 유혹은 적지 않아 도심을 흔들었다 하옵니다. 그러옵기,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 운산에 어내 임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 하노라.

이 일수(一首)는 진이를 그린 것이라 들었아옵니다. 이 구미호(九尾狐)가 어느 악신(惡神)의 고임을 받고 있어온지 시재가 놀라운데 후안부치(厚顏不恥)로 차마 얼굴이 뜨거워 외설 망측스러운 사구(辭句)를 어지러이 하고 있어오니 다음은 알외옵기 천만 죄송하온 음설(淫說)이와 백옥무하(白玉無瑕)하오신 한마님 이목(耳目)을 더럽혀 드리울까 저허하옵다 감이 알외옵나이다.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들헤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뵈 구뵈 꺾리라.

한마님 손이 떨리옵니다. 아무리 화류에 노니는 음부(淫婦)라 할지어도 머리 긴 치마두른 여신(女身)이 언감생심 이런 글을 어찌 쓸 수 있겠아오릿까. 하오나 이런 차마 읽지 못할 부끄러운 글귀가 대장부의 간장을 녹인다 하오니 심규(深閨)에서 엄엄 침

중히 심신을 거두어 온 손녀로서는 천만 측량할 수 없아온 것이 그 마음이옵니다. 옛부터 아낙은 눈멀어 삼년 귀먹어 삼년 병어리 되어 삼년이라 배웠아옵니다. 입이 있되 말 못하온 것이 여인의 길이 아니오닛까. 하물며 부끄러운 언사를 감이 놀릴 수 있아 온데 있어서 오닛까.

어저 내일이야 그럴 줄 모르던가.  
있으랴 하드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것 역시 구미호의 대장부 철심을 꺾었다 놓았다 하옵는 농간이옵니다.

들어와서는 아내를 목석(木石)으로 놓아두고 나가서는 노류장화와 부끄럼없이 정분 나누며 사는 것이 대장부의 치레이오닛까. 기방 출입하는 남편 의복 매무새 추레하오면 아내의 흥이라 하옵니다. 투기는 칠거지악에 드는 것이온적 강작(強作)으로 참사오나 맏히고 맏힌 한이 가슴에 응어리졌아오며 삼팔바지 다듬고 짓는 손이 자꾸만 떨리옵니다.

한마님 진정 이몸은 목석이 아니옵니다. 목석이 아니옵니다.  
병인 구월 열사흔날 의손녀 살이

의 한마님 전 상살이

문

안 알외옵고 환절일기 고로압지 못하온데 한마님께옵서 기체후 일행 만강 하옵신 문안 아압고져 하옵나이다.

간곡하오신 하서 받자옵고 무려용렬하온 말씀 닷하오시지 앓으시고 구구절절 자애로우시며 절절구구 타이르시온 부도(婦道), 사무쳐 익혔아옵니다. 하감하오신대로 여경삼년상(興經三年喪)이 어든 불거(不去)라 하온 조강지처의 지체이옵니다. 뜬구름이 잠시 일월을 가리었다 하오면 걸힐 때는 반드시 있어야올즉 걸힐 때까지의 기

다림이오며 괴로움이옵니다. 하오나 봄날 범나비 같은 풍류 남아의 아내의 일월은 가는 날 오는 날에 구름 걷힐 때 없아오니 가는 날 오는 날이 혼혼(昏昏) 울울하올 뿐이옵니다. 만사가 천수(天數)이오니 아내의 하올 일은 참을 것과 기다릴 것뿐이옵니다.

지자하오신 한마님, 한마님께오셔 넘어오신 그 구비구비, 손녀도 따라 넘겠아옵니다. 구미호가 아홉꼬리를 다 흔들어 요사를 떼다 하옵더라도 사당(祠堂)에 폐백(幣帛)하고 들어온 종부(宗婦)이오며 장차 사당과 봉사(奉祀)를 맡아 피실 종손(宗孫)의 어미이옵고 존구(尊舅) 삼년상을 더불어 되신 죄인이기도 하옵니다. 본시 무재박덕(無才薄德)하와 지아비의 고임을 입지 못하고 지냈아오나 천성 다정(多情)이로되 재가(齊家)에 큰 힘은 없었아오니 이번 미망(迷妄)에서도 어느 때가 헤어 나올 줄 믿어야 하겠아옵니다. 숙덕정전하오신 한마님의 자애하오시는 외손녀이옵니다. 경계 하교하오신 말씀 간부에 새겨 각골(刻骨)하겠아오니 하념 마시옵소서.

알외울 말씀 하감하옵심 져사와 이만 줄이옵고 내내 기후 만안하옵심 바라옵나이다.

병인 구월 스무이렛날 외손녀 살이

외 한마님 전 상살이

문

안 알외옵고 일기 부조이온대

기체후 만안하옵신 문안 아압고져 하오며 댁내제질이 일안하옵신지 복모 일시도 부리압지 못하옵나이다. 저번 하서에 감환(感患)으로 미령(靡寧)하옵신단 말씀 듣자옵기 하정에 죄만 놀랍사오며 의오서 쾌차하옵심 다만 두우(斗牛—斗星과 牛星)에 축원하올 뿐이옵니다.

올해는 구월 입동(立冬)이오라 김장도 끝나옵고 시월 시향(時享)과 동지차례(冬至茶禮)만을 앞에 남기옵고 누대봉사(屢代奉祀)라 하오니 기일(忌日)은 모두 봄여름이온즉 이해도 다 보내는 것이 되옵니다. 삼십을 겨우 넘은 몸이오나 어른아래 알외옵기 황공하

은 말씀으로 사는 것에 지쳤아옵니다. 사고(四苦) 중의 생고(生苦)가 으뜸이라 듣자왔아오나 이대도록 괴로운 목숨이 모질어 슬프오이다.

한마님께옵서 그 많은 시앗들을 은위병행(恩威並行)으로 거느리시옵고 오히려 당당하시던 모습 다시 새겨 목척 아닌 마음으로 혈루(血淚)인들 남몰래 오죽이나 흘리셨아오셨을까 새삼 가슴 아프오며 하정에 탐복하올 뿐이옵니다.

옛부터 「딸의 시앗에는 바늘방석, 며느리 시앗에는 꽃방석」이라 하온즉 연전에 소고(小姑)가 시앗을 보았을 때 절곡(絕穀)하시고 탄식하시던 존고께서,

「글쎄 연분이라는 건 있는 모양이지 뭐예요. 만나려 헌것두 아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게라지 뭐니까. 그애가 소용으로 송도에 내려갔을 때 천수원(川壽院) 개울가에서 말안장을 풀고 관을 벗어 배 위에 덮고 누워서 큰소리로 서너 곡조를 뽑았다는 거예요. 때마침 그곳을 송도아이가 지나가다 노랫소리를 듣고 담박에 그애라는 걸 알아차렸다는 거래요. 영웅능지영웅(英雄能知英雄)이라고 그 아이 역시 천하 명창이 아닙니까. 천생연분이지요.」

「아이 형님두. 천하연분이라니요.」

듣고 게오시던 시 고모님이 질색을 하시니 존고께서 태연히,  
「아들이 데리구 살면 며느리지요.」

하셨나이다.

방자한 것이 실로 요물이오라 누구든 손아귀에 넣어 농낙을 하오니 남편의 배반보다 더욱 섭섭하옵고 외롭삼나이다. 오목이 말대로 상스러운 말씀이오나 무슨 요사스러운 것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옵니다. 그리하옵기 면벽참선(面壁參禪) 삼십년의 만석선사를 그렇게 파멸시켰압고 화담선생의 철심(鐵心)을 어리게 만들었아오며 어느 명문가의 선비는 그에게 꺾임받아 금강산 유람을 함께 하노라 수삭을 소식 끊어 자당이 병석에 누우시고 걸인 모양이 되어 돌아온 자제의 모습에 기함을 하오셨단 말씀듣자왔아오며 사나이면 일별에 현혹되어 전후를 분별 못한다 하옵니다. 명문대가 고관대작에서 속세를 등진 승려도인까지 한가지로 그 요

물앞에 한낱 구차스럽고 어리석고 추한 필부가 된다 하오니 근엄  
방정하시던 벽계수(碧溪守) 영감도 이 구미호로 인하여 심한 망  
신을 하오셨다 하옵니다.

벽계수 영감은 모이면 진이 말이 나오는 것을 마땅치 아니하셨  
아와,

「한낱 계집에게 흑하다니. 나 같으면 그를 보고 꾸짖고 물리칠  
결세.」

하셨다 하옵니다. 그 요물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버르어 왔다  
하오니 그런 말치 요망한 것이 어디 또 있겠어옵니까.

하루는 벽계수 영감이 송도 만월대에 달구경을 가셨다 하더이  
다. 이 행차를 미리 알고 진이가 소복단장으로 그곳에 가 기다렸  
다 하오니 그저 끄적할 뿐이옵니다. 옛궁전의 잠초 우거진 옛터  
에 달은 밝고 교교하운데 소복단장의 젊은 계집이 나타났어오니  
때와 장소를 생각해 보오소서. 요요(妖妖)하옵고 처염(悽艷)하온  
자태를 짐작할 수 있어옵니다.

창깨나 한다는 젊은 요물이 벽계수 영감의 말고삐를 잡고 한  
수 시조를 읊었다 하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머리.

방자하고 버릇없게도 「碧溪水」는 「碧溪守」와 겹쳐서 부른 말이옵  
고 명월은 중천에 밝은 만월과 제 기명인 명월(明月)을 겹쳐 부  
른 것이오니 꽤 씹하고 방자는 하오이다만 요물이 아니고는 갖출  
수 없는 재치인가 하옵니다. 벽계수 영감이 선녀가 아닌가 하셨  
던 심사도 짐작이 가옵니다. 이런 계집이오나 만금을 앞에 쌓아  
도 살림 차린 일은 없다 하운데 가운이 쇠함이온지 이런 시앗 보  
옵는 것이 천수이온지 남산밑 숲을 등진 곳에 살림집 차리옵고

그 호탕하옴고 의연하오며 범사에 초연하옴던 사랑에서 꿈속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마님 길가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시앗보기이옵니다. 다동집 평양집 성주집 등등 손녀가 알기에도 몇 손가락을 꼽을 그 많은 시앗들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감당을 하오셨압나이까. 한마님 진정 생불이 되올런지 먹지 않아도 시장기가 없아오며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사옴고 항상 숨이 가쁘오며 몸이 천근같삼다가 갑자기 무게가 빠자고 하오니 무슨 조화이옵니까. 면구진청이 부끄러울 명창을 지아비로 이십년이 가깝삼나이다. 술 담그고, 주효 장만, 연일연락의 뒷바라지, 풍류 모임의 의복가춤부터 못 계집들과의 뜬 소문에도 익어왔압나이다.

하오나 근자에 와서, 그 구미호와 살림을 갖고부터 사랑의 인품이 달라졌아오니 전에 없이 조용해졌아오며 오히려 자상해지옴고 착실해진 것이옵니다. 남편을 시앗에게 아이옴고 아내는 수발드옴는 수고가 없어졌아오니 이 허전하옴을 어찌 다 알외오리까. 요물은 요물이어서 행전 하나 보선 하나 때묻은 것을 보은 일이 없아오며 방탕기녀로 언제 침션을 배웠압는지 남편의 의복 일절 손수 씻는다 하오니 존고께서,

「체체하고 습습하고 상냥하고 온 그런 기집이 천하에 있겠느냐.」

침이 마르시게 칭찬하오시는 것 천근으로 가슴을 누를 따름이옵니다.

요망한 것이 제법 너그러운 체 범도를 지키는 체 자주 사랑을 본체에 머물게 하오니 사랑에서는 살림차리기 전보다 오히려 외박이 즐었나이다. 동기들과 집안 동서들이,

「그런 시앗이 어디 있우. 시앗복두 타고 나야던데.」

하옵니다만 한마님께옵서는 아시옵나이다. 사리 밝고 투기 없고 체체한 시앗 가진 본택내 마음이 어떠하온가를 아시옵니다. 차라리 간악하고 발칙하고 방자하게 구오면 이렇듯 외롭고 슬프지는 아니하올 것이오이다. 스스로가 이토록 초라하옴고 보잘것없이 느껴지오며 자격지심에 마음이 시들어가지는 아니하올 것이옵니다.

송도집(진이·소설은 출신 고장 밑에 「집」을 붙여 부른다)은 존고께

물앞에 한낱 구차스럽고 어리석고 추한 필부가 된다 하오니 근엄  
방정하시던 벽계수(碧溪守) 영감도 이 구미호로 인하여 심한 망  
신을 하오셨다 하옵니다.

벽계수 영감은 모이면 진이 말이 나오는 것을 마땅치 아니하셨  
아와,

「한낱 계집에게 흑하다니. 나 같으면 그를 보고 꾸짖고 물리칠  
걸세.」

하셨다 하옵니다. 그 요물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버르어 왔다  
하오니 그런 발칙 요망한 것이 어디 또 있겠어옵니까.

하루는 벽계수 영감이 송도 만월대에 달구경을 가셨다 하더이  
다. 이 행차를 미리 알고 진이가 소복단장으로 그곳에 가 기다렸  
다 하오니 그저 끄적할 뿐이옵니다. 옛궁전의 잡초 우거진 옛터  
에 달은 밝고 교교하운데 소복단장의 젊은 계집이 나타났어오니  
때와 장소를 생각해 보오소서. 요요(妖妖)하옵고 처염(棲艷)하온  
자태를 짐작할 수 있어옵니다.

창개나 한다는 젊은 요물이 벽계수 영감의 말고삐를 잡고 한  
수 시조를 읊었다 하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찌리.

방자하고 버릇없게도 「碧溪水」는 「碧溪守」와 겹쳐서 부른 말이옵  
고 명월은 중천에 밝은 만월과 제 기명인 명월(明月)을 겹쳐 부  
른 것이오니 꽤 씹하고 방자는 하오이다만 요물이 아니고는 갖출  
수 없는 재치인가 하옵니다. 벽계수 영감이 선녀가 아닌가 하셨  
던 심사도 짐작이 가옵니다. 이런 계집이오나 만금을 앞에 쌓아  
도 살림 차린 일은 없다 하운데 가운데 쇠함이온지 이런 시앗 보  
옵는 것이 천수이온지 남산밑 숲을 등진 곳에 살림집 차리옵고

그 호탕하웁고 의연하오며 범사에 초연하웁던 사랑에서 꿈속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마님 길가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시앗보기이웁니다. 다동집 평양집 성주집 등등 손녀가 알기에도 몇 손가락을 꼽을 그 많은 시앗들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감당을 하오셨압나이까. 한마님 진정 생불이 되올런지 먹지 않아도 시장기가 없아오며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사웁고 항상 숨이 가쁘오며 몸이 천근같삽다가 갑자기 무게가 빠지고 하오니 무슨 조화이웁니까. 먼구진청이 부끄러울 명창을 지아비로 이십년이 가깝삽나이다. 술 담그고, 주효 장만, 연일연락의 뒷바라지, 풍류 모임의 의복가춤부터 못 계집들과의 뜬 소문에도 익어왔압나이다.

하오나 근자에 와서, 그 구미호와 살림을 갖고부터 사랑의 인품이 달라졌아오니 전에 없이 조용해졌아오며 오히려 자상해지웁고 착실해진 것이웁니다. 남편을 시앗에게 아이웁고 아내는 수발드웁는 수고가 없어졌아오니 이 허전하웁을 어찌 다 알외오리까. 요물은 요물이어서 행전 하나 보선 하나 때묻은 것을 보은 일이 없아오며 방탕기녀로 언제 침션을 배웠압는지 남편의 의복 일절 손수 씻는다 하오니 존고께서,

「체체하고 습습하고 상냥하고 온 그런 기집이 천하에 있겠느냐.」

침이 마르시게 칭찬하오시는 것 천근으로 가슴을 누를 따름이웁니다.

요망한 것이 제법 너그러운 체 범도를 지키는 체 자주 사랑을 본체에 머물게 하오니 사랑에서는 살림차리기 전보다 오히려 외박이 줄었나이다. 동기들과 집안 동서들이,

「그런 시앗이 어디 있우. 시앗복두 타고 나아던데.」

하웁니다만 한마님께웁서는 아시웁나이다. 사리 밝고 투기 없고 체체한 시앗 가진 본택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시웁니다. 차라리 간악하고 발칙하고 방자하게 구오면 이렇듯 외롭고 슬프지는 아니하올 것이오이다. 스스로가 이토록 초라하웁고 보잘것없이 느껴지오며 자격지심에 마음이 시들어가지는 아니하올 것이웁니다.

송도집(진이·소설은 출신 고장 밑에 「집」을 붙여 부른다)은 존고께

도 효성이 지극하다 하옵니다. 노인네가 어러지셔서 자주 남산밑  
 첩며느리에게 가 머무시옵는데 혼정신성(昏定晨省)이 깝듯하고 자  
 리조반에서 삼시 식선 밤참은 물론 즐겨하오시는 별식 장만에도  
 민첩하다 하오니 송도집 송도집 총애하오시는 것도 하정에 민망  
 하오며 부끄럽고 슬프오이다.

사랑에서는 자주 집에 머무으나 혼백은 두고오는 양 말이 없아  
 읊고 종일토록 사랑에 누어 잠잠하오니 아니 대하는 것만 못하옵  
 니다.

사오일 전에도 집에 돌아와서 사랑에 누어 있아옵기 모처럼 마  
 음드려 소취단장하옵고 잣죽쟁반을 받쳐들고 사랑채에 나갔압는  
 데 장지문을 닫은 방안에서 사랑의 가만한 노랫소리가 들려 옵더  
 이다.

어름우희 댕님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죽을만덩  
 어름우희 댕님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죽을 만덩  
 정둔 오날밤  
 더디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가만한 가운데 억천가지 시름이 서린 처절하옵도록 절절한 노  
 랫소리였아옵니다. 명창을 지아비로 근 이십년, 이토록 사모치는  
 그리움과 절절한 정과 사나이 막중한 모든 것을 오직 한 사람에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던진 듯하은 그런 처참한 창은 처음 들었아  
 옵니다. 한마님 그때 그자리의 제마음을 무엇으로 형용하오리이  
 까. 두려웠압나이다. 무섭고 두렵고 떨려오며 몸과 마음이 뜨겁  
 게 타는 것 같았아옵니다. 천길 나락에 빠져드는 듯, 억겁 암흑  
 지옥에 갇혀 버리는 듯 스스로의 형용이 바래고 살아져 버리는  
 듯 하늘이 내려앉아 앞을 가려 버리는 듯 아득하고 외롭기만 하  
 였아옵니다. 손녀는 잣죽쟁반을 든 채 다시 발소리를 죽이며 안  
 채로 돌아와 입은 채 쓰러지고 시앓본 후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

졌던 것이읍니다.

한마님 은순 빙심이시웁고 숙덕 정전하오신 한마님, 좁은 소견 이오나 이제 어렴풋이나마 제가 취해야 하올 마음가짐, 처리해야 하올 제반사를 깨달은 것 같사읍니다. 투심에 불타던 아수라(阿修羅)를 비키웁고 미움의 야차(夜叉)를 멀리 하웁고 겨누려 하던 초열(焦熱)에서 빠져나와야 하겠나이다. 제나이 송도집보다 하나 순위인 갓 서른, 천금 같은 준행 나이 열두 살이읍니다. 내년이나 다음해에 자부 보웁고 송도집이 섬기지 못하오는 사당과 봉사 되시고 지내오면 그럭저럭 삶도 저물어 진정 목석이 되리이다.

아직 쾌차하웁신 문안도 듣지 못하였아은대 용렬무례하은 장광 설로 괴롭혀드린 죄 천만 천만 무접사오나 은혜로 관용하웁소서.

병인 시월 초열흘날 외손녀 살이

외 한마님 전 상살이

문

안 알의웁고 일기 부조이은대 한마님께웁서

기체 일행 만강하웁신 문안 모르와 동동촉촉(洞洞燭燭)하은 복모 일시도 부리압지 못하와 하오며 오래 문안 알의웁지 못하은 죄 천만 천만 무접사웁나이다.

차시 들 좌 외숙께오서 평안감찰사로 제수되오셨단 말씀 가문의 광영이오며 한마님 노후 흥복이시웁나이다. 못자와 경하하오실듯 하오나 외오있아오니 참섭치 못하웁고 하정에 지극 창모(悵慕)로소이다.

이곳 소녀는 그간 세월 유수로 흘러버리고 왔아은데 준행 어언 십사세오라 동래정씨(東萊鄭氏)가 십오세 규수와 정혼하와 사주단지 이미 전해웁고 초례(醮禮)는 사월 열나흘날로 택일되온바 알의웁나이다.

한마님께오서 권권 애련하오시던 유아가 어언 장성하여 성인이 되려 하오니 덧없는 유수(流水)도 자취를 남긴듯 대견 든든하나이다. 규수는 나주목사(羅州牧使) 정인은씨 따님으로 유시부터 은순 단아하오며 자당 심씨 현덕이 높아 부도와 여공재정을 두루 익혔

다 하오니 가훈 증흥을 가이 바랄 수 있어올듯 존고와 사랑에서  
도 기대하오시고 모처럼 집안에 서기가 감도는 듯 경사로소이다.

손녀 연치(年齒) 어언 삼십이세로 이제 슬하에 자부를 거느리게  
되오니 아직은 소년시어미로서 겸연적은 바도 없지 않사오며 남  
의 귀한 자손 자식삼아 아버지 땀에 힘이 있을까 지극 저허되옵  
니다.

사월이면 방초시(芳草時)이오니 광주 백리길이오나 한마님께오  
서 행차하시와 외손부 신부래에도 친림하시옵고 들좌외숙부택에  
서도 효도를 보시오면 하옵는 하정 절절하오나 근력이 어떠하오  
신지 궁금아옵고져 하나이다.

알외을 말씀 하감하옵심 첫사와 총총 이만 줄이옵고 기후 내내  
만안하옵심 바라옵나이다.

경오 삼월 스무날 외손녀 살이

외 한마님 전 상살이

문

안 알외옵고 차시 녹음방초 승하시에 한마님께옵서 그간  
기체후 만안하옵심 문안 아옵고져 향년 간절하오이다.

하송하오신 남초(藍綃)한끝, 밀화 노리게 삼작 황공히 받자왔아  
오며 한마님 자애 흥중 깊이 새기옵고 아희들도 흥은지은에 감격  
하였압나이다. 이번 경사의 어미(어머니)와 두 외숙모 도움이 많  
사와 본집 도움이 몇몇하였아오며 자부도 듣던 바보다 오히려 윗  
가는 용색행지(容色行止)이오니 어리석은 어미마음 기쁘고 든든하  
을 따름이옵니다.

다만 이번 경사에 한마님 뵈잡지 못하와 유한이오며 좋은 시절  
이오니 하루 바빠 근력 차리시옵고 일차 행차하오시기 바라옵나  
이다.

담으로 미령중이시면서 무재용렬의 손녀위에 쏟으시옵는 자정  
난망이오며, 하문하옵신 송도집도 아직 그곳 남산 밑에서 살고  
있아오나 근간 기이한 소문을 들었압나이다. 다름아니오라 애시  
사랑과의 사이에 기이한 약조가 있었다 하온데 양인 동거를 육년

으로 작정하옵고 전 삼년은 한양에서 후 삼년은 송도에서 지내기로 하였다 하옵니다.

이해는 삼년째 가옵는 해이오니 해안으로 송도로 반이(搬移)하올 모양이온대 사랑의 향은 어떠하며 또 관직을 어찌하올지 암암하오나 칩거가처(蠶居家妻)가 무엇을 하리오마는 궁금 측량없아옵나이다.

지난 삼년 대변없이 지내온즉 인척지인들이 한결같이,  
「이선전관은 처복이 있어. 부인은 현숙하여 일체 투심없고 소설은 양귀비요 띠꼬리니 양창국의 현신으로 옥루에 놓고 있지 뉘가.」

한다 하옵니다. 연이오나 한마님, 오뉴월강상(五六月降霜)이 여심(女心)이오이다. 송도집의 심증은 모르되 손녀의 마음은 다부지게 가리려 하와도 고개를 들려는 노여움 시새움 안타까움으로 야차로 화하옵고 수라(修羅)로 되었아옵니다. 현숙하다는 칭송을 듣기까지의 심증의 고초는 한마님께옵서 익히 아오시는 몸부림이오며 아내가 깊고 깊은 절망(絕望)을 겪은 후에야 갓출 수 있는 거동에 대한 보답이오이다. 곁이 평정하옵다고 안이 잔잔할 수는 결코 없나이다. 송도집 진이의 자질은 투기하옵기엔 너무나 뛰어났아오며 시새워하기엔 위인이 지나치게 사리 밝고 민첩체체 하옵고 설부요안(雪膚曉眼)은 천품이오니 천수를 부러워할까 겨늘 기력은 없아옵니다.

사가(士家)에 태어나서 부도 여공을 익히고 배운 바는 이름 석자 문안문, 겨우 은문(諺文) 익혀 쓰고, 열너전 떼면 학문은 족하다 하셨나이다. 아녀자가 학문하면 기구해진다 하오셨는데 학문 익히지 못한 몸 시앗보고 공규(空闕)를 지키지 하 오래이오니 선인들 말씀은 거짓이오잇까.

송도집 진이의 높은 학식과 잡기라 할지라도 자즈러진 가무현 악하오며 찌르는 듯한 재치를 따라가지 못하오니 지아비 마음을 그와 어찌 겨누어 차지할 수 있겠아오리잇가. 마음을 암담하게 아프게 던져 버리오니 남이 현숙하다 하더이다.

하오나 불현듯 노여움이 솟아 쫓아가 머리채라도 끌어잡아 치

고 싶을 때가 있었아오니 그것은 그 구미호가 어줍잖게 제법 사리에 맞추어 인사를 차릴 때였나이다.

요물이 협기가 있어옴고 인사가 밝아 기녀생활에서 모은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옵고 때마다 마음쓰고 뜻하지 않을 때도 선물이 잦사오니 물리치면 정처(正妻) 지체에 투기 증오가 되옵고 받자니 오장육부가 뒤집혔아오며 특히 기일마다 풍성 깔맞춤한 제물 받쳐드리니 제상에 진설하며 손이 떨렸습나이다. 애시 육년 약정의 이씨가 사람이라 하정(下庭) 참사(參祀)는 하지않사옵되 인사는 극진하여 가내 칭송이 자자하오니 종부 체면이 어찌 되었겠나이가. 실로 요물은 요물이오이다.

그 요물이 어찌 주물렀압는지 조전비(교전비·轎前婢) 오묵이년까지 송도 아나서(정삼품 이하 벼슬아치의 첩을 하인이 이르는 말)에 혹하여 남산밑 송도집에 심부름가기를 낙으로 아오니 기색할 일이옵니다.

그 오묵이년이 하온 말이온데 그 구미호가 전번 혼사에 과남한 예물을 오묵이에게 들려 보내며,

「아녀자는 일부 중사가 제일이니라. 좋은 사내 만나 아들 낳고 딸 낳고 길이 직혀 살아라.」

하더라지 않사옵니까. 천한 기녀로 무릇 대장부 간부를 녹이며 기생재상(妓生宰相)이란 말대로 대관고작을 임의로 놀린 몸이 그런 말을 하였다 하더이다.

한마님, 존고께오셔는 오늘도 남산밑 송도집에 행차하오시고 이제 어엿이 자부를 거느린 손녀는 아직 소년의 몸으로 아랫사람 고임받아 마님칭호 듣자오며 이 글월 적삼는 중 며느리가 오미자 화채쟁반을 드려오오니 꿈인가 하오나 며느리앞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이 심사는 여전하오니 백팔번뇌(百八煩惱)중에 아내의 투심이 강작(強作)하여 참는다 하와도 으뜸인가 하옵니다. 체념과 체면치레로 살며 그저 자복(子福)만 누려볼까 하나이다.

자고로 미타인행 사십팔원(彌陀因行四十八願)중 영리여신원(永離女身願)이 첫조라 들었나이다.

他生莫作 女人身  
百年苦樂 依他人

이라 하지 않사옵니까. 여신으로 태어난 죄로소이다. 금세에 적선하여 타세에는 여신을 벗어나야 하겠나이다. 금세에 적선하여 타세에서도 역시 여신으로 태어나고 싶사옵니다. 아름답고 재질과 학덕이 높고 흥이 아니오면 가무현악까지도 절묘한佳人(佳人)으로 환생하고 싶사옵니다. 여필(麗筆)을 들어,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임의 정이  
녹수 흘러 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잊어  
울어 예어 가느고

이런 절절한 시구도 적어보고 싶사옵니다.

한마님 뜰에는 불두화가 흐드러져 피어 있어 아름답고 북악 솔바람이 솔향기를 전해 주옵니다. 작은 사랑에서 준행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히 들려오오며 행낭에서는 오묵이와 개똥어머니 흥두께에 입힌 삼팔다듬는 소리가 도란도란한 이야기소리에 섞여 들려오나이다.

며느리와 준완은 한방에서 수를 놓고 있어오며 승하시 한일(閑日)이 태평하오이다.

십삼세 신부도 이씨가문에 들어와 햇수로 이십년, 조상님의 보살핌과 지아비의 은혜로 아들을 얻어 이 태평 속에 있어오니 짐중 잡념이 문득 부끄러우오나 한가하옵기 왕내하옵는 잡념인가 하옵니다.

수삼일전에 들렸던 서 의조모 편에 알외은 감사한끝 며느리의 효도이오니 어여뻐 받아주옵소서. 서의조모 낙치한 모양 가련하와,

「할미씨 이가 없으니 고기도 못 먹겠네.」  
하엿압더니,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지요.」

하와 웃었나이다. 진정 인생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으며 사는 것인가 하나이다.

알의을 말씀 하감하옵심 젓사와 이만 즐이옵고 한마님께옵서 태평 누리오시고 내내 기후 안강하오시고 백년 향수하오소서.

경오 사월 그믐날 외손녀 살이